

전주대 박물관, 코로나19 관련 특별전시

‘봄, 여름, 가을 겨울 - 당신의 평안한 일상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주제 11월 19일까지 진행

전주대학교는 지난 8일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 당신의 평안한 일상과 건강을 기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 관련 특별전시가 진행되고 밝혔다.

이번 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김건우) 특별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으로 진행된다.

김건우 박물관장은 “어느 날, 우리 삶 속에 불쑥 찾아와 우리의 일상과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삶이 변한 요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시대 안부를 묻는 선비들의 편지 및 각종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실시한 민간의 예방 방법 등 그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각종 유물을 전시, 소개하고 있다.

전시를 담당하는 박현수 학예연구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선조들의 전염병 극복에 대한 지혜를 살펴봄, 코로나19의 빠른 퇴치와 다시 일상적인 사회로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주대학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 당신의 평안한 일상과 건강을 기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 관련 특별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시는 오는 11월 19일까지 전주대학교 박물관(대학본관 3층)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켜 1회 최대 30명의 동

시 관람이 가능하다. 관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20-4642)로 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대학 2기 과정 개강

10월 8일~11월 25일까지 총 3가지

과정 정원 마감까지 상시 접수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10월부터 ‘with 코로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비한 팔복예술대학 2기 과정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국내 최정상 교수진들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기획, 글쓰기 강의부터 전주 시민을 위한 문사철(文史哲) 바탕의 인문학, 온라인 미술사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예술을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아낌없이 마련했다.

오는 10월 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2기 과정은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과정, 시민 문화예술 교육과정, 예술인·시민 공동과정(팔복명사특강) 등 총 3가지 과정으로 모집된다.

이에 따르면 예술인 역량강화 과정은 코로나19 시대, 급변하는 문화예술 환경에서 예술인들의 생존전략 모색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뭉쳤다. 브랜드 마이셀프에는 제일기획 브랜드팀장을 역임하고 문체부, LH, BK 등 국내 굴지의 기관 브랜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브랜드인 앤파트너즈 황부영 대표와 전시기획자부터 기자, 홍보마케터로 20년 간 일해 온 문화예술 온택트 홍보전문가 주식회사 아트앤컴의 이연수 대표가 교수진으로 참여한다. 1기 인기 과목이었던 철학적 사유로 풀어내는 예술가의



글쓰기 수업인 철학과 작가노트에는 허경(철학학과 해운 교장)이 함께한다.

시민 문화예술 교육과정은 상호소통형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된다. 팔복N문화창고는 매주 다른 교수진들이 문학·역사·철학을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내며 수강생과 소통할 예정이다. 도서 팟캐스트 1위의 인기 진행자 정 박 교수를 시작으로 제27회 대산문학상 수상자이자 인기 팟캐스트 진행자인 오은 시인, 세계사에

연관한 총감독을 역임하고 차이나는 클라스 등 유쾌한 강연자로 정평난 김병기 교수, 7년의 밤, 종의 기원, 완전한 행복까지 국내 최고의 베스트셀러 정유정 소설가가 교수진으로 참여한다. 올해 처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미술사를 이해하는 4가지 질문들은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유튜브 채널로 주목받는 ‘널 위한 문화예술’의 공동대표이자 출연자인 이지현 공동대표가 함께한다.

공동과정인 팔복 명사특강은 오감으로 배우는 예술, 쉽게 만날 수 없는 명사들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10월 8일 개성과 배우 강성진에게 직접 듣는 현장감 있는 대중예술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국 대표 성악가 소프라노 박미자에게 배우는 아름다운 성악 발성법, 커피 전문가 박영순과 시음부터 역사까지 함께하는 커피 특강, 조하산 노인호의 인기 강연 향기의 미술관 클래식 편까지 총 4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팔복예술대학이 2기를 맞아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교류 커뮤니티로 발돋움하고, 문화예술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시민들에게도 오감으로 예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각 과정은 정원 마감 시까지 상시 모집한다. 재단 홈페이지(www.jcf.or.kr) 및 유선(063-211-0288),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전주문화재단 팔복 기획운영팀(063-211-02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제32회 정읍사 문화제’ 비대면 진행으로 안전하게 폐막

정읍시는 지난 25일과 26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열린 ‘제32회 정읍사 문화제’가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정읍사 문화제는 정읍사 여인의 송고하고 아름다운 부부 사랑 정신을 기리며 천혜의 비경 내장산의 아름다운 봄은 단풍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다.

‘정읍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문화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 추억을 남겨줬다는 평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체험행사와 먹거리 부스 운영 등 대면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고, 실시간으로 문화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중계했다.

25일 오전 채수의례와 여인제례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정읍사 문화제는 오후 6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부모상 시상식(최연임, 정읍시 정우면)과 함께 초대 가수 김용민, 진성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26일 열린 정읍사 가요제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1만8천여 명이 동시 접속해 문화제를 함께 즐겼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읍사 문화제의 개최 여부를 두고 고민이 많았으나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비대면 추진을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일상에 활력이 되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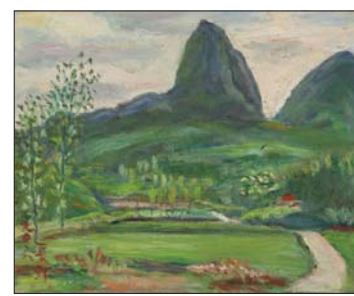


지난 25일과 26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열린 ‘제32회 정읍사 문화제’가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한편, 정읍사공원 일원과 정읍천 2·3리하리 주변에 조성된 형형색색의 화려한 야간 경관조명과 포토존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거

리를 제공하고 오는 11월 14일까지 유지된다.

/정은희기자



김용봉 '미아신'



김홍 '미아신평경'



조기풍 '지리산'



윤재우 '하경'

찾아가는 미술관 '풍경이 머무는 자리'展

전북도립미술관, 내달 25일까지 진안가위박물관 '도란도란 가위세상' 관서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의 ‘찾아가는 미술관’이 지난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달간 ‘풍경이 머무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진안가위박물관 ‘도란도란 가위세상’관에서 개최된다.

원주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미술관’은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중 일부를 엄선해 도내 시·군 전시공간에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로, 더 많은 도민에게 미술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다.

‘찾아가는 미술관 ‘풍경이 머무는 자리’展은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컬렉션 중 ‘풍경화’를 주제로 다양한 풍경화의 해석

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풍경을 주제로 한 4명의 작가들을 모아, 자신만의 형태로 완성한 ‘시선과 색채의 세계’를 관람객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김용봉, 김홍, 조기풍, 윤재우 등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풍경을 그린 작가부터, 우리 주변의 익숙한 풍경을 소재로 한 작가까지 고유한 표현방식과 상상력을 더해 완성한 풍경화를 소개한다. 풍경화를 통해 관람객들이 주변의 풍경을 다시 환기하면서, 건전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회는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유효상 기자

정읍시립국악단, 코로나19 극복 시민 힐링 프로젝트 '국악 정감' 공연

정읍시립국악단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응원하는 코로나19 극복 시민 힐링 프로젝트 ‘국악 정감’ 공연을 선보인다.

시는 오는 9월 30일과 10월 28일 오후 7시 30분부터 정읍시예술회관에서 2회에 걸쳐 ‘국악 정감’ 상설 공연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공연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시민들을 위로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새로 부임한 김용호 단장과 함께 제32회 정읍사 문화제를 시작으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전통의 향기를 선사할 계획이다.

공연은 수제천 선율을 재편곡한 태평성대의 ‘제천무’를 시작으로 ‘팔도민요’와 거문고 연주곡 ‘출강’ 등 소규모 실내악으로 재편성한 곡과 내장산의 아름다운 사계를 모듬북과 가야금 병창의 만남으로 선사할 계획이다.

마지막 작품은 ‘샘터종고’란 주제로 한국 여인 내면에 흐르는 강인함을 표현해 지친 일상에 활력을 안겨줄 예정이다.

공연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단, 선착순 200명으로 입장을 제한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객석 간 거리두기 공연으로 진행된다. 공연 당일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은 관람이 제한된다.

/정은희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대표전화 063)227-4610

NAVER 은혜상사(주)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